



#### 목단강 팔녀투강비

8명의 여성 대원 중 안순복과 이봉선이 조선 여성이었다.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랩, 독백 대회 수상자들과 팔녀투강비 답사 기념 사진

# 항일여성

7호 | 2019. 9.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박자혜(朴慈惠)의 사랑과 투쟁

-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신영숙

- “뜻밖의 생”은 작가 김주영님의 소설 『뜻밖의 생』에서
- “민족의 노래”는 역사가 김삼웅님의 『약산 김원봉 평전』에서 인용.

독립운동가 박자혜!  
이름이 자혜여서일까  
신채호와 온 민족을 향해  
자애롭게 베푸는 은혜의 삶  
자신을 온전히 태워버린  
박자혜.

1895년 12월 11일에 태어나  
1943년 10월 16일에 운명.  
명성황후 시해된 해에 나서  
광복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 천사가 된 듯.

그의 자혜로운 삶은  
‘뜻밖의 생’의 연속이랄까  
어려서 아기나인으로 입궁  
10여년 궁인으로 지내다  
경술국치에 궁을 나와  
숙명여학교 기예학과 3년  
1916년 조산부양성소 졸업  
총독부의원 산부인과 간호부로  
생각 밖의 삶에 쫓겨다녔다

1919년 3.1 혁명 때  
병원에 몰려드는 부상자들  
조선인 의사와 간호사들  
힘을 모아 항일 거사  
‘간우회’ 조직, 동맹 파업  
일경에 체포됐으나  
병원장 덕분에 풀려나곤  
중국으로 또다른 삶을 찾아

북경 회문대 의예과 입학  
1여 년 뒤 이회영 부인

이은숙의 증매로  
41세 신채호 만나  
24세에 혼인의 연  
평생의 반려로는 너무나  
어긋나 보이기도 하련만  
1921년 첫 아들 수범 낳아  
신채호의 아낌없는 사랑  
둘째를 임신했을 때  
함께 살 형편이 못 되어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인사동 ‘박자혜산파’ 개원  
조산원은 늘어나도  
찾는 이는 적기만 하여  
1928년에는 폐업 위기  
끼니도 잇기 어려운 지경  
추위와 기아의 나날  
그래도 자녀 교육  
남편 독립운동 후원

1926년 12월 의사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  
서울의 길 안내  
1928년 남편의 여순 감옥  
원하는 책과 솜옷 등  
옥바라지도 어렵지만  
가난을 원망하랴!  
이를 악물고 또 악물고  
오로지 큰 아들 교육

1936년 2월  
남편 옥사에 아들은 해외로  
홀로 남은 박자혜는  
1943년 이생을 마감.

서럽지만 미련 없이  
하늘나라로 훨훨 훨훨  
또다른 뜻밖의 생  
그리며 떠났으리라

아기로 죽은 둘째 수정  
아버지를 뒤따라간  
셋째 두범 곁으로.  
어머니로 못 다한 사랑  
아내로 못 다한 그리움  
일말의 회한과 원망도  
없지 않았으리라  
이름 대로 자애로운 은혜  
베풀고 떠났으리라

1990년 대한민국 정부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박자혜와 신채호의  
애국애족의 생애에  
헝가리의 저항 시인  
산도르 페퇴피(1823-1849)  
“민족의 노래”를 바친다.

“사랑이여  
그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마저 바치리  
그러나 사랑이여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내 그대마저 바치리”

## 목차

- 04 인사말 이사장 김희선
- 06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 주제연극 <1919, 세상을 바꾸기위한 과정의 기록>
  - 연출가 제작노트 <배우고 공감하다>
  - 제2회 항일 여성 역사 랩대회
  - 제1회 항일 여성 역사 독백 대회
  - 시민참여 프로그램 & 100인의 스토리
  -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및 역사화 전시회
  - 항일 여성의 역사를 그림으로
  - 국제심포지엄
  - 시상 및 기념식
  - 만주 독립항쟁 역사유적지 답사
- 31 강병구, 강촌마을 소녀 이야기 II - 김지희 선생(강병구 선생님의 딸)
- 35 연대 활동
- 39 사업 소식
- 40 광주전남지회 활동
- 41 후원 회원 명단

발행일 2019년 9월 30일 통권 7호 발행인 김희선 편집위원 김수미 김희선 박창식 송형중 신영숙 최교익  
발행처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용두동 232-20) 사속재회관 402호 디자인 인쇄 디자인포인트  
후원  수협  KEB 하나은행  DROPTOP

- 후원안내 / 회원가입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01-0230-6110-11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가입문의 : 전화 02)924-0660 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  
카페 <https://cafe.naver.com/herstory0301>

홈페이지 <http://www.herstorykorea.or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erstorykorea/>

인사말

# “해주 기생의 독립운동”



이사장 김희선

.....  
 .....  
 .....  
 .....

해주 기생들이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구할 수 없어 자신들이 직접 쓴 독립선언서다.

이 해주 기생 독립선언서를 이번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에서 함세웅 신부님께서 축하글에 소개해 주셨다.

1919년 4월 5일자 매일신보는 “1919년 4월 1일에 해주에서 김성일, 문응심, 김영성, 문재민, 옥은경 등이 흰 옥양목 치마저고리에 태극 수건을 두르고 거리로 나서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수 천명의 인파가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오늘 해주 기생 일동이 해주 종로에서 남문으로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고 동문을 경유하여 서문으로 시위를 행진하였는데 해중월, 벽도, 월희, 향희, 월성, 화용, 금희, 최주 등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수원, 통영, 진주 등 곳곳에서 기생들이 모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고 했다.

“우리는 100년 후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는 조선에다가 식민지 교육을 심어놓고 왔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노부유키의 이 어처구니없는 망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의 경제 전쟁 선포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때 **"나는 죽어서도 독립만세를 외치리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신 김경희 지사님의 외침과 **"왜놈대장 보거라!"** 윤희순 지사님의 호령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준다. 이렇듯 독립과 광복은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애국지사님들만의 투쟁도 아니다. 이름 없는 해주 기생들이 쓴 이 독립선언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웃음을 여미게 한다.

이처럼 독립을 갈망하는 마음이 어찌 남녀가 다르겠는가. 수레는 한 쪽 바퀴로만 달리지 못한다. 이런 평범한 진리는 우리 독립운동사가 항일여성독립운동을 얼마나 제대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다.

항일여성의 독립투쟁은 역사의 진실과 정직이라는 거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개인의 삶을 희생하여 역사를 살다 간, 유·무명의 인물들을 높이는 역사 문화적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역사 문화가 살아 있는 시대야말로 사람사는 세상이라 하겠다. 이 뜻을 살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를 실시, 청(소)년들 스스로 역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졌다. <제2회 항일 여성 역사 랩대회>, <제1회 항일 여성 역사 독백 대회> 등 청(소)년들이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느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주제 연극 <1919,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과정의 기록>의 공연은 역사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극이 끝난 후 관객과의 출연자들의 대화는 관객들의 잔잔한 울림을 감싸주었다. 또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항일여성 역사화’는 관객들에게 스토리가 있는 그림으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이론적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님은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남성 중심으로 역사를 보도록 배워왔기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전제는 남성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는 것을 깨는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주셨다. 또 이지원 교수님은 “여성항일독립운동가의 ‘발굴’은 없었던 여성독립운동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 기억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항일여성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발표뿐만 아니라 강정숙, 이선이, 이숙화 등 선생님들의 토론과 신영숙 본회 연구소장님의 사회로 심포지엄의 내용이 대단히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게 하셨다.

이번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는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참석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먼저 수십 명의 랩과 독백 그리고 시나리오 신청서들을 심사해주신 심사위원 분들,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님, 토론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새롭게 역사화를 그리고 초상화 설치에 수고해주신 작가님들, 공연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애써준 공연 관계자 분들, 문화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 100인의 스토리를 비롯한 20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 사무국 직원들, 특히 이번 문화제는 송형중 대표 특유의 연출과 기획으로 진행되었다. 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정성이 있었기에 문화제도 있을 수 있었다. 이번 문화제를 통해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사랑이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시대정신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100년 근현대사의 기록



〈주제연극 공연〉 “1919,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과정의 기록”

일시 2019. 8. 7. ~ 8. 18. | 장소 정동 세실극장



관객과의 대화



## 연출가 제작노트 배우고 공감하다

2019년 가을, 안녕하십니까?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주제 연극 <1919 :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과정의 기록>의 연출, 송현석입니다.  
 구름이 하얀 점. 장마가 가고, 바람을 따라, 하늘은 깊어, 구름 한 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애정으로 성황리에 무사히 공연을 마치게 됐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가슴으로 시대를 생각하는 깨어있는 정신을 가진 모두.  
 여러분들이 있어 오늘도 태양은 따사로운가봅니다.



연출가 송현석

### “정동에서 올려지는 항일의 무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을 맞고,  
 독립운동가분들이 재조명받을 수 있게 되고, 시끄러운 오늘의 정국에,  
 기억하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동을 위한 소리 있는 아우성이 되었길 바랍니다.

### <구성 의도>

1919, 3.1혁명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총체극을 통해  
 지난 100년의 역사와 향후 10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아직 해결치 못한, 답습의 네오콘.  
 그에 기인한 수많은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  
 우리, 100년을 이뤄낸 역사 속 그들이 부름에 답하여  
 본 극을 통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을 공감하며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어보는 거울이고 연극은 동시대를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2019. 7. 13. | “간접적 체험으로 흘린 뜨거운 눈물, 이내 관객과 공감할 날을 고대하다”

5.18 민주화 운동의 민중들의 분노와 울분을 표출해보고  
독립운동의 불꽃이 현시대의 촛불에 불을 붙인 민족성에 대해 의지를 하나로 모아보다.



2019. 7. 23. | “모든 단계의 플롯이 구성되고, 그와 동시에 역사적 첫 Run Through”

- |       |             |                |            |
|-------|-------------|----------------|------------|
| 구 성 : | 1. 프롤로그     | 2. 독립운동        | 3. 한국전쟁    |
|       | 4. 10.26 사태 | 5. 5.18 민주화 운동 | 6. 이산가족 찾기 |
|       | 7. 88올림픽    | 8. 성수대교        | 9. 주입식교육   |
|       | 10. 등골브레이커  | 11. 3포세대       | 12. 핸드폰중독  |
|       | 13. 언론조작    | 14. 데이트 폭력     | 15. 노무현 서거 |
|       | 16. 세월호 참사  | 17. 촛불집회       | 18. 에필로그   |

배우 日 : “그 시대의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표현해내는 것은 정말 힘들다. 연습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뜨거웠을까? 나왔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이다.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우리 다시 해보자.”

2019. 8. 3. | “연습실을 떠나기 전 마지막 Run과 다짐의 마지막 연습”

연습은 끝났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전, 불의에 맞선 진실의 소리를 외치기 전, 그들은 어 떻혔을까? 감히 우리가 견줄 수도 없겠지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우린 다 같이 손을 모아 각자의 다짐과 함께 우리의 앞날을 약속한다. 역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2019. 8. 5. | “첫 극장에 입성해 안전을 유의하고 모든 배우들과 함께 공감의 무대를 세우다.”

무대는 세월호 참사의 난파된 배의 철골들을 형상화했지만 최대한 100년의 역사, 하나하나의 기록을 담는 마음으로 정사각형의 액자, 역사적 기록, 100개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 우리의 결전의 장소인 임시정부를 세우다!!!



2019. 8. 7. | “우리가 흘린 땀방울의 울음이 관객에게 울림이 되길”

시작이 되어줄 한 줄기의 빛.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 되었다. 관객들이 박수소리와 공연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준다. 젊은 청춘들에게 너무 멋지다고,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서 그때를 떠올리며 자신도 빈 액자처럼 앞으로의 액자를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을 전달받는다. 우리는 앞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 연극은 예술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역사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토론하며 관객과 같이 완성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로서로 그 시대를 공감하며, 위로하고, 앞으로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관객과의 토크쇼 : 역사의 주인공,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고 추억을 공감하다.”

관객 曰 “너무도 화가 치민다.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울분에 차고, 부끄러운 정국에 대해 분노가 있다. 다시금 그 날들을 기억해주고 깨닫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 8. 18. | “안녕. 서로를 기억하고 공감하며, 잊지 않고 행동하며 미래를 약속하다”

머물고 간 자리, 바람만이 스쳐지나갈 뿐이다.  
모두의 가슴 속, 오늘도 내일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희망이 존재하길.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그 날! 우린 그때 광야를 향해 울부짖겠다.  
부끄럽지 않은, ‘항일’의 물결! 당장의 앞, 가시에 요동치지 않고 대의에 요동치리라!

## 연극을 마치며

길고도 짧았던 60일간의 여정. 모든 제작자 일동,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적습니다. 그들을 공감하며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보고는 눈을 질끈 감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속의 인물들을 탐구하고 시대와 정신을 느끼면서 참여자들 모두 '오늘'에 대한 더욱 큰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그 시절을 대표했던 우리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작업을 하며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은 우리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하고, 공감하고, 행동하는 것에 명백한 목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극은 시대의 정신을 표방하며 시대를 연결해 서로를 소통하게해주는 예술로, 관객과 만나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연극을 완성시키는 여러분, 시대를 완성시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정신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모험을 떠나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역사가 '나'를 향해 울부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주신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부끄러움을 갖게 해주신 것에 고개를 숙입니다. 작업에 참가한 모든 제작, 배우, 예술가들에게 매우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히어로입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자주 독립을 노래하다!”**

“랩으로 되살아나는 항일여성독립운동”



본선 참가자

김선빈 박성현 HX3 박영후 물망초 조성현 2J 최무영 강재형 오수환 신재민&이민우 김도한 김세령 박찬성 김창현 최다솔 김상민 안창민 오경민 이윤호 변유석 영동이와 수찬이 이민성 (총 23팀)

축하공연



〈독립군가〉를 합창 중인 100인의 스토리

## ♪ 노래로 항일여성 역사를 배워요 ♪

일시 2019. 8. 10. | 장소 배재어린이공원

### 수상자

- 대상 오수환
- 금상 박찬성 최무영 2J
- 은상 김창현 HX3 이민성
- 동상 조성현 김세령 영동이와수찬이 김도한 신재민&이민우

### 랩 대회 대상 수상자 가사

오수환 - I want to fly

[verse 1]유난히도 하늘을 자주 보던 소녀는 오늘도 꿈에 젖어 '날 가두는 모든 사슬을 풀고 날 순 없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1917년 5월이었지 비행기를 처음 본 건 그의 꿈에 흐릿하게 빛나던 무언가는 선명해졌지 저들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디든 자유로이 누빈다면 날 읊아맨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뿐하게 오를 수가 있다면 저들의 황궁에 들어가 폭탄을 떨어주고, 사슬을 부수고 우리나라의 동포들 까지도 자유롭게 날게 해주고 싶다 꿈꾸지

[hook] 만약 날 수 있다면 i wanna fly 모두가 비웃어도

[verse 2]꿈을 가지고 떠돌았지 3년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당차게 말하던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 듣고 나면 다들 '꿈은 당차다만 여자가 어떻게...' '여자는 항공학교 입학도 못 해' 하지만 그녀의 꿈을 믿어주고 밀어준 고마운 이들이 있었기에 3주 동안 멀치잡이 배를 타고 떠났지 중국 항해를 거센 풍랑, 여자는 안 될 거란 비웃음 어렵게 도착해서 받은 입학 거절 마저 간절한 그녀의 바람 앞에 그를 꺾을

무엇도 되지 않네 마침내 원난에 갔을 때 꿈에도 바라던 비행사에 한발짝 더 다가갔네 "비행술을 배우는 일은 남자에게도 어려운 일 허나 망국의 한을 품고 여자의 몸으로 이곳에 왔으니 그 의지에 탄복해 입학을 허가하노니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비행사가 되어 주길"

[hook]

[verse 3]yeah 그녀는 마침내, 하늘을 날아 그녀가 꿈 꾸던 모습대로 말야 빛 바랜 사진 속 그의 눈빛은 내게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 그녀가 누군가 날아오르는 걸 보고 꿈을 품었듯 그 아래 서서 누구보다 높이 날고 있는 비행기를 보며 우린 꿈에 젖어 그녀가 그랬던 것 처럼 별 드는 다락 속 낡은 사진의 먼지를 털어 그 눈빛을 가슴 한구석에 담아놓고서 대신 먼지 쌓일 일이 없게, 선명하게 기억해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니까 그들의 여기 있었기에 그녀가 날개를 달아준 우린 여기 살고 있으니 전부 우리가 할일은 오롯이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뿐 now we can fly

### 작품 소개

한국 최초의 여자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권기옥 여사의 치열했던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어 그 일대기를 랩으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이 곡이 우리 한국인의 가슴 속에 독립운동가 분들의 '눈빛'을 다시금 바라보게 해 그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헌신 앞에 시(詩) 한 잔 올립니다.”



### 본선 참가자

차민서 김호준 신유림 김해미 안재준 원사덕 장수지 김이슬 전형진 정택수 류정윤 정건하 한예진 정채린 박권능 곽유진 배윤서 이은채 배문성 박하남 김도희 이민재 김규민 (총 23명)

### 축하공연



극단 진일보의 축하 공연

## 극으로 항일여성 역사를 배워요.

일시 2019. 8. 11. | 장소 배재어린이공원

### 수상자

- 대상 김해미
- 금상 류정윤 김이슬 배문성
- 은상 정건하 안재준 정채린
- 동상 박권능 이민재 전형진 장수지 정택수

### 독백 대회 대상 수상자 대본

#### 김해미 - 장강일기

#### / 1920년. 상해 망명 결심. /

아녀자들이 바깥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환영받지 못했던 1920년, 나는 20살이었다. 시아버님과 남편이 상해로 망명길을 떠난 후, 무엇인가 내 길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거센 욕구가 일어났다. 나는 그 욕구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는 상해 임시정부로 가는 길을 나섰다. 이 길은 한 여인의 길이다. 모진 풍파로부터의 도피도 아니며, 안주도 아니다. 또 다른 비바람을 스스로 맞기 위해 떠나는 길이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다.

#### / 1920년. 상해 도착 /

상해에는 무언가 긴장되고 활기찬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름, 명예, 자존, 금지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생활이었다. 포도청 같은 목구멍이었다. 나는 국내로 돌아가 독립자금을 조달해올 것을 제안했고, 나의 귀국길은 임시정부의 공식임무가 되었다.

#### / 중국에서의 26년 /

그 뒤로 중국에서의 26년...자금조달을 위한 밀사로 국내를 7

번 다녀왔다.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이봉창의사가 수류탄을 저격하고, 윤봉길의사 거사, 탈출, 피난길, 한국여성동맹창립, 남경대학살, 탈출, 일본군 성노예(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인들, 학도병 탈출, 무장독립, 광복군... 오직 민족의 독립과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하던 수많은 유명 무명의 애국지사분들이 돌아가셨다. 나는 누구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가? 도대체 독립이란 무엇이며, 또 투쟁이란 무엇인가? 독립의 주인은 누구이며, 투쟁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조국해방.

#### / 1946년, 조국해방후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 /

그리고 지금.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한 채 중원에 묻힌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을 대신해 나라도 조국에 가서 보고를 해야만 한다. 싸웠노라고, 조국을 위해 싸웠노라고. 불혹이 된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움켜쥐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말해 주었다. 조국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그것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 작품 소개

정정화 독립운동가의 회고록 '장강일기'의 내용들을 독백으로 정리해 본 대사입니다. 많은 고민과 기억들을 돌이켜가며 이 회고록을 써주신 만큼 지금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셨을까? 에 집중하며 후반 대사를 엮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 할 고난과 뜨거운 용기를 부끄럽지만 제 입을 통해 담아내보고자 합니다.

## 시민참여 프로그램 & 100인의 스토리

일시 2019. 8. 10. ~ 11. | 장소 배재어린이공원

- 독립군가를 부르는 '100인의 스토리'



-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 '100인의 스토리'란?

3.1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100인의 시민들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추모문화제 기간 동안 <독립군가>를 합창하며 미래세대에 독립운동의 노래와 역사를 전달하였다.

### 100인의 스토리가 합창한 <독립군가> 가사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니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를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때까지 싸우러 나아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 할건가  
 정의의 날센 칼이 비끼는 속에 이기리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때까지 싸우러 나아가세

\* 독립군가란? 민족 항일기에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하여 조직된 독립군들이 불렀던 노래

## ● ● ● ● ● ● ● ● ● ● 초상화 및 역사화 전시회

일시 2019. 8. 10. ~ 18. | 장소 배재어린이공원, 정동 세실극장



▲ 배재어린이공원 전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초상화 전시회 배너 ▶

▼ 정동 세실극장 전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 정동 세실극장 로비 전시  
항일 여성 역사화



▲ (왼쪽부터) 김시영 작가, 이진석 작가, 송형중 대표  
김주영 작가



▲ (왼쪽부터) 노명희 이사, 신영숙 소장,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김희선 이사장, 강정숙 이사



## 항일 여성의 역사를 그림으로

처음 시도해본 항일 여성 역사화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면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항일 여성 투쟁의 역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 1. 항일여성 윤희순과 여성의병 투쟁

1895년 을미의병 때, 윤희순은 「안사람의 의병가」·「병정의 노래」등 의병가 수십 수를 지었으며, 일본군을 향한 분노를 격문으로 써 붙이고 백성들의 항일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정미의병 때는 무기와 탄환을 제조, 공급하였습니다. 또 솥을 생산, 판매하여 군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준섭 작

### 2. 항일여성 제주잠녀 항일 투쟁

제주해녀 항일운동은 1931~1932년 동안 집회와 시위를 전개한 우리나라 최대의 어민 운동이자 1930년대 최대의 항일운동이고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한국여성어민, 해녀들의 항일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투쟁에 앞장선 대표적 인물로 해녀 부춘화가 있습니다.



유진희 작

### 3. 항일여성의 3.1혁명 투쟁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저항하여 일으킨 3.1혁명투쟁에는 여교사, 학생 뿐 아니라 농민 노동자, 심지어 기생들까지 참여했습니다. 항일여성들은 각종 시위를 조직하고 만세를 외치는 시위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가두시위 도중 다친 부상학생 치료, 식수공급, 돌맹이운반 등의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김시영 작

### 4. 항일여성의 광복군 투쟁

광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0년 9월 17일 중경에서 창설을 선포한, 본격적인 항일전을 위한 군대입니다. 각 지대에 소속된 수십 명의 여성대원들은 주로 항일 선전과 통신 연락, 군인 모집을 위한 초모 활동과 전투 훈련, 그리고 기관지 '광복' 편집과 발간 등 광범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진석 작

### 5. 항일여성의 조선의용대 투쟁

조선의용대는 1938년 10월 중국 호북성 무한(무창, 한구)에서 창설된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군대입니다. 의용대에도 여성대원들이 다수 활동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박차정, 이화림, 김명시 등입니다. 1942년 중경임시정부 광복군과 통합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많은 대원들은 동북항일전투 부대로 넘어갔습니다.



김주영 작

국제심포지엄

##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일시 2019. 8. 12. | 장소 정동 세실극장

구분	이름	소속	발표 제목
기조발제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일제 시기 항일여성운동 연구사 회고와 전망〉
발표 1	이지원	대림대학교 교수	〈일제 시기 국내 항일여성운동 연구사 검토〉
발표 2	김형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	〈1930-40년대 중국 관내와 동북지역, 러시아의 항일여성운동 연구사 검토〉
발표 3	강수옥	연변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연구 현황과 과제〉
토론	강정숙(성균관대학교), 이숙화(한국외국어대학교), 이선이(경희대학교)		

1부 사회 홍정석(청년미래분과 위원장) | 2부 사회 신영숙(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왼쪽부터) 김형목, 강정숙, 이숙화, 이지원, 김희선, 이선이, 신영숙, 강수옥, 송형종

국제심포지엄

## 시상 및 기념식

일시 2019. 8. 14. | 장소 정동 세실극장

2019년 8월 14일(수) 정동 세실극장에서 제2회 항일여성 역사 랩 대회와 제1회 항일여성 역사 독백 대회의 시상식과 더불어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많은 분들의 축하와 박수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다함께 주제연극을 관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랩대회 수상자들



독백대회 수상자들



랩대회 대상 수상자 오수환(오른쪽)



독백대회 대상 수상자 김해미(오른쪽)



김희선 이사장의 기념식 인사말



각 분과 위원장들

# 만주 독립항쟁 역사유적지 답사

일시 2019. 8. 27.~31. | 장소 중국 동북지역

## 8/27(화) 제1일

▼ 비오는 날의 <목단강 8녀 투강비>

▼ 만주로 출발! 인천공항에서.

▼ 중국에서의 첫 식사.



## 8/28(수) 제2일

▼ 당시 총(Gun) 3만개 값인 15만원 탈취사건 설명 조선족 학생

▼ 윤동주 생가 마루에서.

▼ 3.13운동기념비



2019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랩, 독백 대회 수상자와 더불어 문화제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와 그 정신을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4박 5일간의 만주 답사를 떠났다. 목단강에서 시작하여 심양에 이르기까지 넓은 중국 동북지역 땅을 돌아다니며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난과 투쟁, 그리고 유적지에 서린 독립 정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 도문시 두만강 나루터 (중국-북한 접경지대)

▼ 재중동포 친선 교류 간담회(후사모) 연변대 교수님, 학생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8/29(목) 제3일

▼ 백두산 천지

▼ 장백폭포 앞에서 통일을 외치다

▼ 백두산에서 단체티를 입고.



8/30(금) 제4일

## 만주 독립항쟁 역사유적지 답사

▼ 광개토대왕비.

▼ 장군총

▼ 압록강 보트를 타고 북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본다.



8/31(토) 제5일

▼ 마지막 유적지인 동북항일연군기념비 앞에서 단체사진.

▼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장군 기념비 앞에서



만주 독립항쟁 역사유적지 답사기



## 짧은 여행기

위기훈 극작가

출발 전부터 억울한 비감이 조금 있다. 항일, 또는 독립 운동에 팔려오는 희생, 학살, 제국주의라는 단어 때문일까. 올해 2019년은 알려진 대로 3.1만세혁명, 우리나라 건국 100주년이다. 그래서 요청받는 글감으로 독립운동가 소재가 많다. 몇 분의 평전을 읽고 극화했음에도 그 피 냄새를 실감할 수 없다.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고안하고 지문과 대사를 쓰며 때로 울컥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자가 동력 감정이입에 불과하다. 출발 전에 느낀 약간의 비감은 평전들에서 얻은 역사적 정보 때문이다. 그러나 비극의 역사와 내 스스로 이입시킨 감정으로는 실감할 수 없는 피 냄새, 그 괴리에 더 큰 이유가 있는 듯하다. 이번 여행으로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모른다. 근거 없는 생각에 기분이 들뜨다. 입술에 부푼 물집을 툭 터뜨린다.

배낭을 메고 새벽 공항버스정거장을 서성이며 일정표와 답사지역 지도를 펼친다. 폰에 저장해둔 안내 파일 제목이 근사하다.

### ‘지나간 역사에서 미래를 만나다!’

강제된 교훈의 뉘앙스가 없다. 역사의 유적을 보러 가서 미지의 미래를 만난다는 불가능이 매력적이다. 표지를 넘겨 차례를 보니 주요답사지가 나열되어 있다. 목단강 팔녀투강비, 발해 상경용천부 동경성, 용정 만세운동 3.13 반일시랑, 15만 원 탈취사건기념비, 연변대학 항일무명영웅기념비, 훈춘 애국부인회 본부 터, 대중교 3종사 묘역,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광개토태왕릉비, 장군총, 오회분5호묘, 동북항일연군기념관, 양세봉장군 기념상. 서너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익숙하지 않다. 모르는 명칭을 안주머니

에 넣고 비행기에 오른다.

낮선 곳을 걸으니 해방감이 한층 넓어진다. 내 주변의 일상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복잡한 일이 작고 단순하게 보인다. 짓누르는 압박과 부담을 껍질처럼 벗고, 나 혼자만 빠져나온 착각이다.

엔벤 시내는 한문과 한글을 병기한 간판이 즐비했다. 붉은 색으로 크게 쓴 활자가 대부분이지만 시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느슨했다. 수십 년을 외쳐온 공산주의 선동의 숨은 의미가 들킨 모양이었다. 들켰어도 기꺼이 덮어준 것 같았다. 엔벤의 감각은 큰 글씨를 시끄럽게 느끼지 않아 보였다. 자본주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간판도 대수롭지 않은 듯, 그 아래로 구부정한 엔벤 노인이 지계를 지고 지나갔다. 스마트폰 액정을 터치하며 스포츠머리 사내가 전기스쿠터에 올라앉았고, 일본산 마크를 단 자동차가 붉은 신호등 앞에 정지했다. 뒤통거리다 멈춘 아이와 엄마가 서로 다른 곳을 물끄러미 보았다. 낡은 것과 침단의 그것이, 학살의 주체와 핍박의 과거가 같이 있는데 충돌 없이 나른했다. 이 기이한 편안함에서 나는 내가 겪어온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무엇이 그 기억을 끌어왔을까. 내 기억을 가둔 그때의 한 장면을 저들 그림자에서 발견했던 걸까. 나는 그때의 그곳에서 멀어졌고, 저들은 지금 여기서 그림자에 붙잡혀있다는 기분. 그건 연민이 아니었다. 우월감이었다. 눈을 감았다. 골몰해도 단서가 없었다.

웅색한 감상은 두만강에서도, 압록강에서도 돌발적으로 일어났다.

넓이뛰기 선수가 두어 번 내달려 뛰면 넘어갈 듯 좁은 강폭. 저편에 북한 사람들. 일행이 흔든 손을 그 역시 망연

히 보다 허리를 구부렸다. 바라본들 바뀌는 형편은 없다. 없었다. 없을 것이다. 그런 류의 체념으로 읽어버렸다. 일행들과 오와 열을 맞춰 기념사진을 찍었고, 아름답다, 안타깝다, 짧은 탄성을 주고받았으며, 국경을 가로지른 다리 위에서 북한사람들을 지나쳤다. 중국에서 일하고 북한으로 퇴근하는 우리 민족을 지나치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소리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나와 일행은 인사를 나누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모양이라며 싱겁게 웃었다. 북한으로 퇴근하는 그들도 우리의 싱거운 웃음을 읽었으리라.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을 들켰다는 기분에 목 아래가 빨개졌다.

숙소로 돌아와 지고 다니던 배낭을 벗으니 과장되게 흥가분했다. 일행 틈에 섞여 평소보다 말이 많고 소리를 크게 내는 내가 우스웠다. 그런데 서툴고 되바라진 이 태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 인민복의 동상 틈에서 본 저고리. 한반도로부터 멀리 떠나와 여기 이곳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총칼을 휘두른 사람들. 붙잡혀 능욕을 당할까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은, 비참하고 열렬한 그들의 스토리.

한낱 강가에서 건너를 바라본 현실 속의 비현실적인 기분은 '두만강 푸른 물에' 노래를 불렀다.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고, 그럴 용기도 없어 대신에 크게 웃고 떠들었다.

백번 올라 두 번 볼 수 있다는 농담을 들으며 백두산 천지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앞갈나무 숲이 끝나고 펼쳐진 별판. 어디선가 읽은 것처럼 '천생 나라 하나 만들게 생긴' 모습이였다. 그 위로 절벽이 되어 절경이 된 화구벽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천지 물을 담고 있었다. 경이로웠다. 이 천지가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고, 북쪽은 송화강, 서쪽은 흑룡강, 남쪽으로 압록강이 된다고 들었다. 신령스러웠다. 영험했다. 어떻게 감히 이 산 아래에서 이데올로기가 맞부딪혀 전쟁을 했을까, 입술을 씹었다. 신화가 사실로 감각되는 착오를 마음껏 허용하며 비룡폭포를 등 뒤에 두고 소천지를 돌아 산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명동학교. 교정 뒤편에서 야트막히 구불거린 능

선. 땀을 타고 흐르는 눈물처럼 시인의 손에서 흘러내린 시 구절.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되풀이해서 삼켰다. 격렬하게 가만히 있고자 했던, 그토록 가열차게 숨죽인 시인의 흥조가 오버랩 되었다. 결국 동북3성 항일독립운동유적 답사 길은 광개토태왕비도, 백두산도, 독립운동기념비도, 열사들의 묘비 앞도 아닌 시인의 시 한 구절에 발목 잡혔다. 최선을 다해 악착같이 죽은에 당도한 사람들. 시인의 시는 그들의 신음소리 같았다. 그들의 주문처럼 응용거렸다.

누구나 뒷모습엔 예외 없이 살아온 세월이 들러붙는다. 겹겹이 쌓인다. 어느 날엔 넘치고 어느 해질녘에 모자라게 담긴다. 그런 뒷모습을 목격하고서야 비로소 슬픔에 대해 말하는 슬픔이 가슴에 얼룩진다.

엔벤의 느슨하고 나른한 감각이 최선을 다해 악착같이 죽은 이들의 뒷모습처럼 여겨진다.

빼앗긴 나라에 주저앉은 동포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와 싸우고, 싸우다 간신히, 간신히 죽은 사람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다고 복잡한 사정을 작고 단순하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욱 정밀하게 성분을 나누고, 지향하는 바를 일깨워 사람이 사람한테 겨는 총칼을 막아내려 했을 것이다. 비참하고 열렬하게. 죽은 사람의 죽음을 살아있는 우리의 지금으로 위로할 수 없다. 서툴고 되바라진 태도로도 감당 못한 좌절 역시 불필요하다. 끝끝내 그들이 느낀 열패감, 생애 환멸, 온몸으로 저주하던 이데올로기. 메울 수 없는 그때와 지금의 간극에는 아무 짝에도 소용없다.

가을이다. 높고 높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린다.

두만강, 두만강, 압록, 압록, 압록.

하릴없이 몽클하다. 그뿐이다. 그럴 뿐이다.

2019년 9월 초하루,

동북3성 항일독립운동유적지를 다녀와서.

만주 독립항쟁 역사유적지 답사기



##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며

이 희 수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위원

30년쯤 전인가... 북한이 백두산의 반을 중국에게 주었다고 했다. 뉴스 보도로 시작되었고 한국전체가 들끓었다. 냉전이 끝나고 중국과 수교가 재개되었는데 갑자기 백두산관광이 가능하단다. 이미 1962년부터 백두산의 일부가 중국령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냥 우리민족의 백두산을 중국에게 반이나 빼앗겼다는 이야기만으로 전 국민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통탄했다. 그때는 나도 오기가 발동하여 통일이 되어 우리 땅을 다시 찾을 때까지 절대 내발로 백두산은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때는 정말... 나름... 진심이었다.

답사 3일차.

어제 두만강 끝부터 계속 버스로 이동하며 국경지대를 보면서 내려왔고 오늘 백두산을 거쳐 내일부터는 다시 압록강으로 갈 것이다. 첫날 목단강 팔녀투강비부터 답사단을 쫓아오던 비에 이따금 번개까지 치는 유난스런 날씨를 걱정하면서 산을 올랐다. 입장료를 내고 친환경 저상버스를 타자 서서히 머리를 죄어오는 편두통과 귀울림이 시작되었다.

타이가다. 시베리아에서나 볼 듯한 침엽수와 자작나무들이 키다리 경쟁을 하고 있었다. 한참을 숲에 홀릴 때쯤에 또 비가 와다다하고 창을 때리면서 무섭게 군다. 백두산 북파코스의 마지막, 지프차로 갈아타니 나무도 관목도 서서히 사라지고 분홍색 꽃이 핀 풀과 이끼만 듬성듬성 보이는 회색빛 언덕들이 나타난다. 이젠 산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다. 지구의 어느 곳이 아닌 듯, 고도가 높아지자 전혀 다른 낯선 풍경이다. 심장이 좋아든다. 길이 심하게 굽이져서 차는 미친 듯이 흔들린다. 우리 발성 좋은 젊은 답사

단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중국인운전사는 더 심하게 차를 흔든다. 춥고 비도 오고 흔들리고... 팔다리로는 지프차 벽을 붙들고 버티다가 문득 정신이 났다.

그래, 어제 두만강 건너 북한을 보았었다. 강변 너머는 정말 멀지않았다. 지금 백두산이다. 대박... 미쳤다... 그 와중에 천지까지 열렸다. 전설의 용은 우리들에게 자기 집을 들여다보도록 허락해주었다. 1898년 러시아지리학회 탐사단의 글을 빌려본다.

(「가린-미하일롭스키의 여행기」 327-328쪽)

우리 앞에 펼쳐진 전경은 충격적이고 매혹적이면서도 얼이 빠지도록 놀라운 것이었다. 저기 아래쪽에 450m 가량 되는 수직의 비탈에 넓이가 2km<sup>2</sup>정도 되는 초록색 호수가 빛나고 있었다. 검은색의 뾰족한 성곽들로, 또는 그 성곽들의 폐허들로 온통 둘러싸인 이 신비로운 투명한 녹색의 호수는 최고급 사파이어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늘음이 앉은 어두운 색의 벽들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수직으로 뻗어있었고, 거대하고 기묘한 톱니 모양으로 분화구를 감싸고 있었다.

그 호수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마법과 같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있다.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이 있다.

삶 자체가 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마치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저 아래에 있는 자신들의 성에서 지금 뛰어나오면 음악이 울려 퍼지고 화려한 배들이 떠다닐 것만 같다. 그 어떤 동화나 꿈처럼 잊혀진,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곳에는 죽음, 완전한 죽음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호수 근처에서 스트렐비츠키가 모든 동식물계를 통틀어 찾은 것은 날아가던 새들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

는 뼈뿐이었다.

죽음! 화산 자신도 이곳에서 잠이 들었고, 이 투명한 호수는 화산의 무덤이고, 상복과 같이 검은 그늘음으로 덮인 가파른 오각형은 이 무덤을 둘러싼 벽이다.

이들은 무덤의 비밀을 간직하고 준엄한 모습으로 서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지쳐서 분화구를 감싸고 있는 바위들이 기묘하게 튀어나온 모양을 감상하고 있다.

저기 거대한 곰이 커다란 머리를 떨어뜨리고 조용히 있다. 저기에는 날카로운 끝을 가진 침탑이 있다. 그리고 저기 바위 위에는 신비롭고 꿈처럼 부드러운 여성상이 있다. 한손을 가장자리에 괴고 호수가 있는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조각상에는 영원한 평온함과 순간의 신선함이 있다. 그녀는 마치 애석한 듯, 의심하는 듯, 갈등하는 듯 생각에 잠겨 있고 그렇게 아직 완전히 창조되지 않은 세계의 신비로운 이곳에 남아있게 되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했다. 비바람에 우박까지 내려 우비를 입었는데도 온몸이 젖었다. 운동화도 속까지 훌쩍 젖었다. 어제부터 목이 부어서 소금물을 작은 약병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꺼내보니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 수선을 떨면서 노천온천에 손을 담그고 삶은 달걀을 사먹고 굶은 날씨와 역경을 이기고 정상에 오른, 환각인지 환희인지 모를 흥분상태에 있다가 부풀어있는 소금물병을 보고 다시 해발 2700미터를 깨닫는다.

식당에서도 공원에서도 심지어 백두산 정상에서까지 중국인들이 몰려다니며 하도 큰소리로 떠들어서 신비를 느낄 틈은 없었다. 그냥 충격적이었다. 발해 동경성도, 윤동주생가도, 광개토태왕비도 우리 답사단 중에 전생에 나라를 구한 이가 있는지 아주 오래전 격변의 역사를 우리는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보았다. 커다란 평지를 멀리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편안하고 마음이 넓어지는 곳에서 아주 예쁜 하늘에 구름과 아무나 줄줄 따라다니는 강아지, 들판에 가득 핀 백일홍을 봤었다. 넓은 평원에서 호연지기를 느끼고 돌에 새긴 시도 읽어보고 해바라기가 가득한 여름의 끝도 풍족하게 마음에 담았다. 그러나 두만강과 백두

산, 압록강까지의 여정은... 아픈 허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 대 맞은 것도 아니고 무언가 머릿속이 복잡하다. 적어도... 나에게에는... 충격이었다.



두만에서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북한이다. 다리 중간까지만 중국 땅이다. 이때가 오후 3시쯤이었는데 분홍색 단체복을 입은 여성들이 북한쪽으로 가고 있다. 중국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는 북한 여성들로 짐작했다. 오른쪽에는 아직 개통 전인 커다란 다리가 보이고 중국은 입구에 아주 커다란 세관건물을 짓고 있다. 철도는 아니지만 조만간 이곳으로 상당량의 물류가 오고갈 시기가 곧 올 것 같다.

두만강이 이렇게 작은 강인 것도, 국경선이 이렇게 허술한 것도, 출퇴근을 하고 있는 이 평화로운 모습도... 다 어이가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만 섬나라였던 것이나...

## 강병구, 강촌마을 소녀 이야기 Ⅱ

김지희 선생(강병구 선생님의 딸)



오히려 일제에 대한 분노와 어른들을 보며 애처로움에 어머니는 더욱더 오기가 생겼다

성구 오빠를 비롯한 일가인 선생님들은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야학을 통한 의식화 운동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수차례 감옥을 들락거렸다. 일경이 외가에 수시로 드나들며 가택수색을 했다. 사건만 터지면 어머니는 부여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심부름 내용이 뭐냐, 무엇을 배웠느냐, 누구한테 갔다 왔느냐 등

등. 수차례 불러가서 조사받고 혼날 때마다 순경들에게 두들겨 맞던 어른들의 비명은 어머니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오히려 일제에 대한 분노와 어른들을 보며 애처로움에 어머니는 더욱더 오기가 생겼다. 그런 심부름을 하는 어머니를 외할아버지는 매우 힘들어하면서도 모르는 척 눈감아 주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구 오빠 모자의 생계를 보살피 주었다. 그 과정에서 외할아버지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공출도 더 많이 하여 조금이라도 일제에 호감을 얻어 식솔들의 죄를 눈감아

주길 바랐고 딸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외할아버지는 일경들의 수모를 견디다 못해 좀 외진 산 밑에 집을 새로 지어 성구 오빠 모자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고

어머니께서는 회상하신다. 강성구의 경성 복심 판결문에 나온 주소지 장하리 306번지가 바로 그 집이다. 어머니 열한 살 때의 일이다. 어린 어머니가 주로 심부름하는 방법은 “내가 머리가 많으니까 머릿속에 돌돌만 쪽지를 넣어서 따주면 그것을 가지고 나 아는 집에 가서 전달해주면 고생했다”라고 하며 다시 머리를 매주셨다는 거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고 새벽에 깨면 데리고 나가서 밥을 주면 먹고 다시 머릿속에 쪽지를 넣고 매어주었다는 것이다. 때로는 괴춤에 찬 주먹밥을 먹으며 종일 걸어 다니면서 심부름을 하거나 강 건너 십여 리도 넘는 부여 시내도 장날 어른들 틈에 끼어 심부름가기도 했다고 한다. 예전의 부여경찰서 뒤쪽에 작은 사무실이 당시 아

지트였던 모양이다. 거기에 심부름 가면 최재봉 선생님이나 부여읍 중정리에 사는 류기섭 아저씨도 만나곤 했지만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최재봉은 논산에서 재산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으로 서울 중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부여 시내에서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외가 동네가 장정마을이라 야학에서 자주 만나던 선생님이요 특히, 야학당 부지와 건물도 그 선생이 지원해 주었을 뿐 아니라 거처도 장하리가 외가라 자주 만나던 터다. 그의 이복동생 최재원(사진 속에 깃발 들고 두건 쓴 청년)과는 관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육상선수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한다. 류기섭의 집은 강 건너 중정리라 일곱 살 때 외조부를 따라 부여 장에 갈 때도중에 한 번 들른 적이 있다고 한다. 나중에는 부여 시내에 갈 일이 있을 때 성구 오빠 심부름으로 편지를 전달하러 여러 번 들르기도 했던 곳이라 했다. 해맑고 착한 모습으로 장정야학에도 자주 오시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감옥에서 서른 남짓에 죽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마을 어귀에 그의 비가 세워져 있다.

어머니 심부름 내용은 주로 농민 조직에 관한 내용이나 참가자 명단, 야학 관련 교사 명단, 교재 관련이나 회합장소, 앞으로의 투쟁방식,

감옥 동지들 안부, 일제 감시 동향 등등. 그렇게 14살 때까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여경찰서 문턱을 수차례 밟았지만 둘러치기로 모면하면서 머리 쥐어박고 등짝과 종아리 몇 대쯤 맞는 것은 고문받는 오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어리기 때문에 의심도 덜 받거나 발각되어도 훈방 조치될 뿐이라 점차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다. 한편, 어린 나이지만 일가 어른들을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에는 자부심도 있었던 거 같다. 어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그놈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어느덧 어머니 나이는 열다섯을 넘기고 있었다.

“그 어른들이 다 붙잡혀 가는데 내가 맞아 죽더라도 심부름은 해야지”

친구들은 시집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머니 머릿속에는 언제나 일본의 억압 속에서 투쟁하는 불쌍한 일가 오빠나 선생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점차 그들의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외조부의 걱정도 점점 커져만 갔다. 처녀의 몸으로 먼 길을 자주 떠나 심부름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언제 경찰서에서 연락 오거나 집에 들이닥치지 않을까 외할아버지는 어머니를 애타게 “너 이러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 것

다”라며 그 사람들 말(심부름) 듣지 말라고 애원을 하는 데도 계속했다는 거다 “엄마는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왜 안 들어?”라고 물으니 “내가 아버지 말 듣간디, 그 어른들이 다 붙잡혀 가는데 내가 맞아 죽더라도 심부름은 해야지”라고 하셨다. 어린 나이라도 그런 심부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같이 약은 사람이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리광부릴 나이에 얼마나 눈치 빠르게 살아야 했는지 짐작이 간다.

당시 장암면장을 하던 친구 오빠는 어머니를 불러 일거리를 맡겼던 거 같다. 한문이나 산술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정리 및 폐기하는 일을 도와주신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친구 오빠는 장남으로서 집안을 돌보며 농업조합이나 산업조합 평의원을 지내거나 관내 학교 학무위원을 거쳐 면장 일을 보았다. 동생들이 북로군정서 서일의 비서로 독립군 군자금을 마련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철구나 북로군정서 경신국장으로 일하는 용구와도 은밀하게 연락하고 지원했다. 또한, 만주에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고문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에 의해 강제 귀향 조치 후 감시를 받고 있던 부친(강석기)도 봉양해야 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잃은 어린 손녀들과 유복자인 손자를 거두어야 할 형편이었다. 겉으로는 일제의 관치에 동조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친구 오빠는 물론 부친이나 동생들 모두가 단군전 복원건립과 천진을 포교하여 민족정기를 되살리고자 했다. 특히 강석기 어른의 독립유공자 조서기록에 의하면 “다년간 국조 단군을 신봉하는 대중교 포교사업을 전개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단군 유적을 봉심 선교하여 민족문화선양에 이바지한 사실이 확인됨”이라 나와 있다.

단군신봉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념을 넘어서 오천 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소위 황기 2600년의 일본문화에 복속해야 한다는 내선일체의 불합리한 명분을 극복하고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의 부친(석기)과 어머니의 부친(석구)은 연배도 비슷하고 고조할아버지인 大昌어른의 한 손자들이라 이웃하고 살면서 가족같이 지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스스로 없이 친구 오빠 일을 도왔다. 친구 오빠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는 각종 영수증을 정리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계산하는 등의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 특별히 비밀로 처리해야 하는 영수증이 있었다고 한다. 98세 노령의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영수증을 손가락 네 개를 모아 크기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걸 들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하시던 친구 오빠의 당부를 떠올리신다. 임정에서 발행한 공채인지 단군신위를 모실 천진전 건립을 위한 모금 용지인지는 모르나 매우 위험한 증서임은 틀림없다고 본다. 친구 오빠는 예전에 동생인 철구가 공채로 독립자금을 마련하여 만주로 돌아가던 중 일경에 체포되어 경성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때 친구 오빠와 그의 부친도 종로경찰서에서 매우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매사 신중하셨다. 일머리나 처리방식도 쉽고 꼼꼼하게 챙겨주시면서 너 밖에 이걸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 사람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면 행랑채 대문 옆에 있는 절구통에서 곡식을 꺼내주고 얼른 그 쪽지를 방으로 가져와 분류했다고 한다. 외가의 행랑채 대문 옆 절구통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언제나 매일같이 벼나 보리를 넣어 두었다고 한다. 끼니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바깥마당 위쪽 대밭 앞에는 벼짚이 산더미처럼 쌓아둔 곳이 있었는데 벼짚 검불 속에 빨간 천 조각을 놓거나 파란색 무늬 천 조각 무늬를 넣어 짚 토매 속에 넣어서 가져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없을

때는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종이쪽지를 그곳에 찢어놓고 가라는 신호로도 서로 소통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 인기척이 들리면 아궁이 빨감으로 짚 토매를 가져가는 척하기도 하고 증서는 따로 장롱 밑에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태워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한밤중에 금액을 기록하고 증서들은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은 부모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거다. 추렴한 것도 있으며 증서에는 능산리 누구누구 이름 야학당 주인 이름도 쓰여 있었고 그 이름을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다고 하신 거로 보아 장암면을 넘어 부여 읍내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물이 쓸 때(썰물) 어른들 따라 강을 건너가 심부름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영수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만일의 경우 발각되더라도 어머니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른들의 깊은 배려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추측하건대 당시 친구 오빠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단군진영을 보관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작고하신 부친의 유업인 천진전을 반드시 건립하겠다는 각오를 했으리라 여겨진다. 부친 석기 어른은 조선 말 함경도 여러 군의 감리서 주사를 역임한 뒤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지만 이를 마다하고 대

종교에 귀의하고 백두산 천지에 올라 천제 단군을 제향하고 나철과 함께 대중교를 중광하였다.

국권을 되찾고자 구한말 등장한 대중교는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의 총본산이자 구심점이었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던 김구, 이상설, 이시영, 이회영, 김좌진, 정인보, 주시경, 지청천, 홍범도, 신채호 등이 모두 대중교인들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대중교를 항일독립운동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했다. 교주와 더불어 교문의 최고행정책임자인 그는 언제나 단군전 복원건립을 꿈꿔 오신 분이다. 석기 어른이 귀향 조치되어 감시받은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그 원대한 꿈도 1932년 장하리 자택에서 서거함으로써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나라도 이기도 못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신다) 그러나 동생 철구가 3년 옥고를 치른 뒤에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대중교 중흥을 위해 만주에 천전을 세워 단군진영을 모시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다.

짐작하건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추진되는 일이라 결국 천전 건립 비용마련을 위한 모금증서가 아니었나 여겨지는 이유다. 후일 친구 오빠 동생인 철구의 단군전 복원 의도를 눈치챈 일본 경찰이 그를 제만 항일 거두로 지목하여 수년

간 미행하던 중 1942년 겨울에 체포하게 된다. 그는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몇 개월 뒤 이듬해 목단강성 자쓰르 형무소에서 옥사함으로 만주에 세우려던 단군천전은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친구 오빠는 해방되고 3년 뒤어나야 학당 자리 뒷산 증턱에 천조궁을 짓고 단군의 영정인 천진을 모셨다.

어머니는 열일곱이 되어서야 마음이 여유로워졌으며 동갑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하고 동네 동생들하고 강경까지 길이 나서 새로 나온 버스를 타고 터덜터덜 버스 뒷좌석에서 깔깔대며 구경 다녔다고 한다. 시장에서 수놓을 색실을 사거나 옷감도 골라보고 그렇게 평범한 처녀가 되고 있었다. 열여덟 살에 한 번, 스무 살에 한 번 별로 중요치 않은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외에는 경찰서와의 지겹던 인연도 모두 끝이 나고 22살에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8살에서 16살까지 오랫동안 위험한 심부름을 하며 유소년시절을 보냈으나 어머니께서 활동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 눈여겨 볼 만한 대화 내용이 있어 동영상으로 담아 남겨 두었으며, 오로지 구십팔세이신 어머니 기억에 의존하여 알아낸 내용이 대부분이다. 가까운 친척 간이라 고초를 받으면서도 서로 보호를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며 과거 우리 사회상 남자들이 주로 주목되었던 시대이거니와 어린 나이로서 훈방 조치되었을 가능성 크며, 따라서 문서상 기록도 없을 것 같다.

기억해줄 만한 당시의 치열하게 사시던 그 어른들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어머니 혼자 남아 혹시 꿈속에서 오빠들을 위해 일본놈들과 싸우고 계시는 것은 아닐지.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버린 요즈음엔 가끔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속을 많이 썩으셨다”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한다. 정신이 들 때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으면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일을 했다는 말씀과 죽으나 사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이 그렇그렁하신 어머니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그냥 묻혀버릴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주시려고 지금껏 살아계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속으로라고 98세이신 장하리 소녀 강병구(강현순)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알려주신다면 감회가 깊을 것 같다. (끝)

연대 활동

# 성명서

## 전범국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전쟁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제국주의의 망령인 아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과 양심에 정면 도전하는 보복 조치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100여년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반강제적인 차관을 제공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총칼로 국가를 유린하는 만행을 저지를 때, 분연히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으로 온 국민이 저항했던 역사가 있다. 대한 독립을 위해 항거했던 애국선열과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은 물론 국내외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경제전쟁으로 찢어발기겠다는 일본 정부의 패악질을 규탄한다.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수많은 전쟁범죄에 대해 진정한 속죄와 사죄 없는 적반하장식 역사 왜곡의 만행을 일삼는 일본 정부의 '경제전쟁' 선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거짓된 웃음 뒤에 숨겨진 아베의 정치적 야욕과 일본의 검은 속내는 전쟁을 정당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짓거리로 금수만도 못한 행위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를 속죄하고, 수출 보복이라는 범죄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국제적인 규약을 스스로 부정하며 저지른 아베 정부의 '경제제재'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법 위반 사항에 대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1. 일본 정부는 전범 국가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2.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으로 전쟁의 만행을 속죄하라.
3.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경제 제재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2019년 7월 3일 -

# 성명서

## NO 일본극우 아베정부! BOYCOTT 일본제국주의!

일본 극우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제사회에 전범국가 일본 처벌을 촉구한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이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으려면 100년도 모자랄 것이다.

일본은 조선국민에게 총칼보다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사관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1945년 9월 12일, 패망한 일본제국주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말이다.

전범국가로서 사죄와 반성 없이 100년을 이어온 일본의 극우, 아베 정부!

그들의 저의가 일본제국주의 확산, 전쟁 발발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극우세력을 자처한 아베정부 폐악에 분노한다.

이에 한국은 노예적 식민사관을 벗고 이념을 초월한 대동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항일대동단결을 적극 지지하며, 분노에 그치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안으로는 대국민 대동단결을, 밖으로는 국제여론의 정의로운 양심을 깨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승리의 그날까지!

행동강령

하나, 지속적으로 반일운동을 선동한다. 항일 抗日!

둘, 속속들이 극우일본 세력을 연구한다. 지일 知日!

셋, 국제사회와 양심일본의 일본극우세력 궤멸운동을 연대한다. 극일 克日!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2019년 8월 2일 -

## 강제징용 사죄 및 경제보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7월 23일
- 장소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 참석 이사장 김희선  
대표이사 송형중

- 항일역사 단체들이 모여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사죄하고 경제보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청와대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

- 일시 2019년 8월 13일
-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생존 애국지사과 국내외 독립유공자 유족들,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



◀ (왼쪽부터) 광복회장 김원웅, 이사장 김희선, 대통령 문재인, 전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영부인 김정숙,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 국회 학술회의 - 『조선의열단과 약산 김원봉, 100년을 기억하다』

- 일시 2019년 8월 20일
-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참석 함세웅 신부, 광복회장 김원웅, 이사장 김희선
- 주관 조선의열단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국치일 100주년 민족 각성의 날 <독립운동선열합동추모대전>

- 일시 2019년 8월 29일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김희선 이사장 추모사

##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 국내 학술대회 〈조선의열단 100년의 역사인식〉

- 일시 2019년 9월 19일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참석 이사장 김희선  
대표이사 송형종, 연구소장 신영숙

- 조선의열단 100주년을 기념하여 항일여성독립운동 연구소 신영숙 소장이 여성 의열단원 박차정을 주제로 발표



## 한국광복군 제3지대 백파 김학규 장군 제52주기, 오광심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제43주기 추모회

- 일시 2019년 9월 20일
- 장소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 참석 이사장 김희선, 대표이사 송형종, 사무국장 임선영



### 사업소식

## 대전여성단체연합 ‘.....초상화전시’.....

- 전시기간 2019년 7월 3일 ~ 7월 7일
- 전시장소 대전 예술가의집
- 주최·주관 대전광역시, 대전여성단체연합
- 후원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낙생고등학교 <학생주도 역사탐구 프로젝트> 인터뷰

- 일시 2019년 7월 29일
- 장소 사무국
- 참석 이사장 김희선  
연구소장 신영숙

- 낙생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가 담고 있지 않은 항일여성단체를 조사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혁명전야’ 꽃 단장.....

- 일시 2019년 9월 23일
- 장소 배재어린이공원



### 광주전남지회 활동

## 나주 항일의병공원유치대회

- 일시 2019년 7월 25일
- 장소 나주 시청

- 명진 지회장은 나주시에서 열린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선언서를 낭독했다



## 광주전남지회 운영위원들 아베규탄 시민대회에서 팔빙수 무료나눔 봉사

- 일시 2019년 8월 10일
- 장소 금남로 전일빌딩 앞

- 경제침탈 아베규탄!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 광주 시민대회에서 팔빙수 무료 나눔에 봉사한 광주전남지회 운영위원들



## 운영위원회의

- 일시 2019년 9월 26일 (목)
- 참석 명 진 회장, 김행자 고문, 이경순 고문, 박태균, 이현주, 이혜경, 임순덕, 김미숙, 고희주, 윤인지, 김행자2, 최순례, 문인숙, 박선우영, 백정애



'항일독립운동과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 중인 명진 회장

# “.....들의 100년 전의 함성 그대들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 ♥ 개인 회원 ♥

강성종 강영준 강원기 강정숙 국경복 김경미 김경순 김경실 김경옥 김광준 김광희 김기봉 김도연 김동민 김명연 김명옥 김명주 김미희 김민성 김병국 김병기 김병수 김보영 김복순 김삼열 김삼웅 김서경 김선경 김선현 김성호 김성훈 김세원 김소진 김수미 김순단 김시명 김우진 김옥미 김옥순 김옥이 김애영 김연옥 김영섭 김영조 김영주 김영훈 김예진 김완순 김운성 김운채 김윤경 김은미 김인호 김일옥 김일진 김자동 김정화 김종민 김종진 김지환 김지희(요가) 김지희(강변구) 김지희 김진현 김진후 김찬수 김창한 김태관 김태녕 김현숙 김현태 김호근 김희선 김혜라 김행자 김행자(광주) 권성국 권태순 나유진 나종일 남상만 남상혁 노다니엘 노명희 노영숙 노은미 노은영 노재훈 명진 문병호 문성근 문시안 문인숙 문인철 문향숙 민경선 민향선 맹준재 박경덕 박경목 박국호 박금란 박남식 박선우영 박삼규 박소리 박순경 박영순 박운학 박윤옥 박은희 박원광 박장우 박정아 박정철 박정희 박종분 박진호 박제성 박제정 박재홍 박창식 박태균 박하은 박효은 박해숙 방국진 방승환 방영철 방지영 배기성 배성호 배우진 백소망 백정애 변경순 서병남 서보현 서찬휘 서쌍원 서인아 설 훈 성기홍 성세정 성현진 손덕수 손 윤 손태수 손희영 송보경 송주은 송아람 송현권 송현식 신명화 신수정 신상균 신영숙 신은영 신재남 신종근 신희주 심소라 심용식 안광진 안성례 안재준 안해영 안희정 양경숙 양미강 양재원 양혜경 양호준 염락원 오상욱 오수민 오세홍 오여주 오우숙 오재호 오철의 오화자 유승희 유인경 유종일 유준상 유창우 유하영 유홍준 윤여운 윤영전 윤인지 윤현식 이경순 이구영 이기탁 이길용 이덕일 이동준 이동철 이만열 이문석 이미경 이미희 이미희 이민석 이민재 이보나 이상덕 이석문 이석현 이성구 이성래 이성철 이승환 이은경 이은주(문혜) 이은주(츄블) 이원표 이정기 이정원 이정환 이종걸 이주한 이진규 이진석 이진숙 이재희 이찬희 이창민 이창현 이항중 이현민 이현주 이행자 이효식 이효재 이화섭 이해경 이희수 임기상 임동건 임수빈 임순덕 임쌍금 임옥상 임용석 임은순 임정희 임준호 임진택 임현영 위기훈 장병화 장수인 장유식 장정수 장현호 전경미 전기호 전형진 정건하 정동익 정성호 정세균 정순영 정영진 정용설 정원채 정유경 정춘생 정춘숙 정택수 정희영 조수민 조정식 조희숙 주영석 지광희 차영조 차종찬 천병태 천신애 천정배 천혜진 최교익 최광호 최라운 최병일 최선량 최성자 최순례 최영환 최영희 최용철 최윤정 최은규 최정순 최정현 최진섭 최진아 최준영 최재호 최현철 최환열 표대연 탁은지 하명호 하지완 한건희 한의성 함세웅 한정수 함 진 홍사립 홍소연 홍정석 홍충선 황기흠 황수환 황은혜 HARLFINGER OKPUN

## ♥ 단체/기업 회원 ♥

수업 KEB 하나은행 DROPTOP 광복회 김예진목사기념회 김학규오광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요가 스포츠연맹 대한요가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월혁명회 서울시요가연합회 여천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인쇄출판세름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 (주)에너지파트너 지광회 통일맞이넷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한국여성익전화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 해림교회 화운차문화협동조합

### (사)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 도 위 원	김삼웅 문성근 박남식 방국진 양경숙 염락원 유홍준 이덕일 임옥상 임진택 임현영 장유식 정동익 정원채 황기흠
이 사 장	김희선
대 표 이 사	송형중
이 사	강정숙 김애영 노명희 박정희 손 윤 신영숙 이민석 이주한 최성자 홍정석
감 사	이승환 홍미영
향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 장 : 신영숙 / 위원 : 강정숙 박창식 이선이 이숙화 이종민 이희수
기 획 사 업 분 과	위원장 : 남상만 / 위원 : 이승환 서인아
공 연 예 술 분 과	위원장 : 김경익 / 위원 : 양혜경 위기훈 윤현식 한정수 김지환 박소리

시 각 예 술 분 과	위원장 : 이구영 / 위원 : 양혜경 이진석 김서경 김운성 이진석 이화섭
영 상 예 술 분 과	위원장 : 이민재 / 위원 : 권성국 임준호 오재호
홍 보 분 과	위원장 : 이은주 / 위원 : 박정희 박경덕 송아람 박진호
청 년 미 래 분 과	위원장 : 홍정석 / 위원 : 박재정 최라운 남상혁 최용철 김태관 김소진 최선량 송현석 이동준
대 외 협 력 분 과	위원장 : 표대연
대 외 사 업 분 과	위원장 : 이길용
편 집 위 원	위원장 : 김희선 / 위원 : 김수미 박창식 송형중 신영숙 최교익
사 무 국	사무국장 : 임선영 / 간사 : 최우영
광 주 전 남 지 회	회장 : 명진 / 부회장 : 박태균

# Café DROPTOP

맛과 감성을 담은 새로운 감각의  
OLD & NEW 아이스탑으로  
시원한 여름을 즐겨보세요



가맹 및 창업문의

**1577-9073**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밥상에서  
수산물을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지는 **우리바다!**  
사라지는 **우리미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  
하지만, 바다환경 파괴가 계속되면 우리 아이들은  
머지않아 생선이 사라진 밥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의 희망 - 바다.  
수협은 바다를 보전하고, 청소하고, 쉬게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환경의 보전을 통해 우리의 오늘과 미래가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바다를 지켜갑니다.



#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호·육성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

## 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전 국민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은 물론 영토 수호, 국토의 균형적 발전, 문화유산 보존, 경관제공 및 지역사회 유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국가 기여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72.1%), 10명 중 8명은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82.5%)하고 있습니다.  
\* 어업·어촌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수산경제연구원, 2016)

## ②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바다환경파괴와 남획 등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는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연근해 어획량의 60%, 49만 톤의 미성어가 생사료로 사용(2016)
- 바다모래 채취 금지, 냉온배수 배출·간척·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바다 난개발 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계통판매제도 시행, 휴어제 조기도입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③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는 국민과 국가 전체의 공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인 헌법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